

한라시론



김용성
시인·변역가·교사

AI가 우리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AI는 이미 직업 현장에서 사람을 대체하기도 한다. 달라진 미래 직업 환경에서 자녀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들 수 있다. 입시에 유용함은 물론이고, 취업 문을 뚫고 실적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키워 살아남는 것도 결국 자기 몫이다. 미래 직장은 AI와 협업할 수 있는, 융합적이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업무

AI 시대, 자녀 교육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

를 맡을 사람을 뽑으려 할 것이다. 이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평생 학습'을 전제로 한다. AI 시대엔 전문직을 포함해 누구든 '실직 리스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자기 계발과 전문성 향상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며 미취업과 실직이라는 위기를 스스로 돌파해 나가는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느 날 필요하다고 갑자기 발현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몸에 익힌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달려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감' 능력을 들 수 있다. 문제해결 능력은 공감 능력을 전제로 한다. 맞벌이라 해도 틈틈이 자녀와 같이 여가를 보내고 대화하며 '공감'하는 기회를 꾸준히 가질 필요가 있다. 공부하는 잘하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친구에 대한 배려가 없고 상황을 공감하지 못해

문제해결력이 떨어지는 아이를 보기도 한다. 부모가 오직 자녀의 성적에만 반응하고 '공감' 문제를 방치하거나 자녀가 '이기적인' 관점으로만 현상을 바라보는 데에 익숙해지면, 실력을 떠나 '관계'에서 낮은 평가로 퇴출 위험이 크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은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기에 'AI 시대에 꼭 갖춰야 할 필수 경쟁력'이다. 융합 교육이 최근에 강조되는데 타인과의 융합이 무엇보다 기본임은 말할 것도 없다. 어느 직장이든 팀원과 조화를 이루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협업하고 창의적인 성과'를 이루어내는가가 중요할 터다. 협업 능력이 떨어지는 독불장군은 '창의적인 생산성' 면에서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사회에 '기여'하는 마음과 태도를 지니도록

하면 좋겠다. 한마디로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사회인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일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발휘하며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공동체 인식, 나눔과 사회적 책임감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대화에서부터 싹트기 마련이다.

천재와 전문가가 하던 일을 AI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AI를 잘 다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정한 경쟁력은 '인간다운 인성과 공감, 창의성'이 되지 않을까? 특히 AI가 대체할 수 없는 '훌륭한 인간성'이야말로 'AI 시대 필수 경쟁력'임을 꼭 기억하자. 학교에 학원에 애를 맡기면 거기서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고 부모의 역할을 너무 쉽게 '외주' 주고 안주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사설

일파만파 정관계 로비 의혹, 철저한 수사를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소재 한 브랜드 아파트 건축·분양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민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급기야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강제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수사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18일 이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시행사 대표에 대해 제기된 정치권 로비 의혹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총 9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전담수사팀은 최근 오영훈 전 지사 보좌진의 금품수수 및 유혹주점 접대 의혹, 문대림 국회의원과 유착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또 시행사 전직 임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시행

사 대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오 전 지사의 보좌관 등 2명에게 202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유혹주점 접대와 선거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을 위해 시행사 대표에게 입당원서 모집을 부탁하는 통화 녹음이 공개됐다. 또 제주도 고위 공무원을 통해 아파트 고도 제한 완화 편의를 봐준 통화 내용도 드러났다.

아파트 투자 사기 분쟁이 지역 정관계 인사들의 비리 의혹으로 번지면서 제주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마치 제주가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비춰져 착잡하다.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금품수수, 향응 및 특히 제공 등 각종 비리 의혹의 진모를 밝혀야 한다.

기억 쌓인 공연장 허무는 게 도시재생인가

해변공연장을 허문 후 제주혁신 플랫폼을 조성하는 내용의 '제주시 탐동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을 두고 일각에서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모 신청 마감일을 이틀 앞두고 마련한 공청회에선 계획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하지만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발표한 계획안을 중심으로 국토부 공모에 참여했다. 주민·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라고 했지만 도시재생법을 어길 도리가 없어 개최한 셈이다. 앞서 문화예술계, 지역민 등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공청회마저 형식적 절차로 끝났다.

제주신항 개발과 연계해 제주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을 꾀하며 상생 방안을 찾는다는 탐동 국가시범지구 계획안은 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적 인재들이 모여들고 뿔어나가는 관문' 'K-콘텐츠가 빛나는 복합문화광장'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해변공연장 철거'란 표현 대신 '기존 공연장 재구성'이란 말로 제주신항-원도심 연결축에 새로운 공연장을 건립해 배치하는 안도 내놔다.

제주시민들의 기억이 쌓인 공간을 없애고 그 자리에 고층 건물을 지어 도심의 '혁신 거점'을 만드는 게 과연 도시재생인가. 한 도시가 오랜 세월 이어 온 역사와 전통이 경쟁력인 시대에 단지 낡았다는 이유를 들며 부수려 하고 있다. 여름 대표 음악 축제로 30회 넘게 제주국제관악제가 이어지는 동안 해변공연장 객석에 한 번이라도 앉았던 사람이라면 철거 주장을 꺼내기 어려울 것이다. 제주도는 공모 선정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철거하는 게 맞다.

뉴스-in

제주, 위기 도민 조기 발굴 위해 협력 강화

자살 사망자 감축에 역량 집중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에서 보건소,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차 지역안전지수 자살 분야 협업 회의'를 개최.

이날 발표를 맡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여진 선임연구위원은 자살이 정신과적 요인, 경제적 여건, 지역 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라고 설명하며 전 부서가 참여하는 대응체계, 고위험군 조기 발굴과 맞춤형 관리, 자살예방 인력 강화 등 17개 세부과제를 제안.

양재운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와 보건소,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 움직이는 체계를 갖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 오소범기자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운영

○…서귀포시가 위기가구의 초·기상담 과정에서 학대·폭력·방임 및 정신건강 문제가 나타나거나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추진.

19일 시에 따르면 현재 통합사례관리사 6명이 배치돼 76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했고 주 1회 방문 상담으로 복지욕구와 위agy요인을 파악해 공적급여, 주거, 의료, 법률, 일자리, 돌봄 서비스, 후원물품 연계 등 대상자별 맞춤 서비스 456건을 연계.

시 관계자는 "고난도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촘촘히 연계하고, 대상 가구가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열린마당

화재취약계층, 119화재대피안심콜이 지킨다



장재혁
제주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소방교

화재는 평온한 일상을 순식간에 뒤엎고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어린이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화재취약계층에게 그 위험은 더욱 크다.

소방에서는 화재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119화재대피안심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 119종합상황실은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돌봄 공백에 놓인 어린이와 장애인,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

고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아파트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119종합상황실은 해당 동에 사전 등록된 화재취약계층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화재 발생 사실과 대피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전화를 걸어 신속한 대피를 유도한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대응이 시작되는 것이다.

제주 119화재대피안심콜 가입자는 지난 7월 말 기준 2만3144명으로 전년 대비 7.8% 늘었지만, 아직 가입하지 못한 화재취약계층이 적지 않아 가족과 이웃의 관심이 필요하다.

오늘 등록한 작은 정보 하나가 위기 순간 생명을 살리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119종합상황실은 앞으로 도민의 위험을 한발 앞서 살피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골든 타임의 파수꾼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직변경공고

본 회사는 2026년 08월 1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전원일치로 유한회사 제주팜으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8일

주식회사 제주팜

제주시 원도형로 93, 104동 502호(노형동, 부영아파트)
대표이사 정은경

칼라강판조립식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제주백도라지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평인
2009 백도라지 평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모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모지전문

제주토박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예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